

전 남

# 놀면서 배운다, 영어캠프

## 전남도, 24일부터 도내 6곳서 초·중생 2천명 대상

전남도 영어체험캠프가 농어촌 영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전남 영어체험캠프에는 지금까지 7200여명의 학생들이 원어민과의 밀착수업으로 살아있는 영어를 배웠다.

전남도는 2일 “오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내 6개 캠프에서 초·중 6학년, 중·고 2학년 학생 2016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영어 공교육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영어체험캠프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갈증을 풀어줬다. 도교육청 초·중등 영어교육 전문

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초·중등 교사들의 현장 수업 비결을 곁들여 ‘잘 만들어진 캠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원어민 선생님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풍, 댄스, 수학 등 다양한 주제별 부스체험과 서바이벌(생존) 게임, 미니 올림픽, 골든벨 올리기 등 이색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한 운영교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 미국 에리조나주립대, 미주리대 등 4개 대학교에서 서류·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된 원어민교사를 초빙해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는 96명의 원어민교사가 참여한다.

영어체험캠프 참가 학생은 지역교 육청별로 추천을 받아 확정했으며 캠프 기간 중 필기시험, 자원봉사, 참여도 등 평가항목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미국 어학연수도 보낼 계획이다.

전남도 윤승중 행정과장은 “이번 영어체험캠프가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영어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ah@



“엄마~ 나 먼저...”

여름철새인 개개비가 순천만 갈대밭에 동지를 틀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개개비는 ‘개-개-개’ 하는 울음소리가 독특하며 갈대밭에서 번식한다. <순천시 제공>

# “‘365생(生)’을 명품브랜드로”

## 전남농협-장성군 3개년 사업전략 발표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주)와 장성군이 손을 잡고 지역 대표 브랜드인 ‘365생(生)’을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과 전남농협은 최근 삼계농협에서 ‘장성군 365생 브랜드 조직화 사업전략 발표회’를 가졌다.

‘365생’ 명품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군 대표 품목인 사과·배·대봉감 생산농가 1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진결과 참여 농가별 맞춤형 기술지도와 타지역 우수농가 견학을 통한 지속적인 재배기술 지도로 사과의 경우 특품비율이 10%이상 증가했다. 또 평균 판매가격도 지난해보다 9.3% 높은 3만7849원(2010년 3만4618원/5kg기준)을 정산해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는 ‘산지 중심의 유통강화로 농업인 실익증대’라는 비전을 내세워 산지유통센터(APC) 전속출하 조직인 공동선별 출하회를 집중 육성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연합사업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5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오는 2015년까지 67억원, 2016년 80억원 등 판매 역량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 전남 황칠나무로 심혈관 약 개발

##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선정 연구비 5억 확보

전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 지역 남해안에 자생하는 황칠나무의 성분을 추출해 심혈관질환 치유를 위한 식품과 의약품으로 개발한다.

조성대 의대, (주)녹향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자생 황칠나무로부터 심혈관

질환 제어 식·의약 소재 및 생물학적 지표 개발’ 과제가 산림청 주관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간 5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받게 됐다.

이들 기관은 황칠나무를 친환경적 시스템을 이용해 발효, 추출하고 유용성분을 나노캡슐화해 장내 흡수도를 높이며, 심혈관질환 대량 생산기

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화까지 연계키로 했다.

심혈관계 관련 시장은 세계적으로 3000억달러(한화 약 360조원), 국내 약 2조 5700억으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 난대성 상록교목으로 완도·진도·신안·해남 등 전남지역에 천연림 870ha, 인공림 411ha가 자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 수배차량 정보 실시간 확인

## 화순경찰, 전국 첫 스마트 치안시스템 시연

화순경찰(서장 윤명성)이 지난 29일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안시스템’을 선보였다.

화순지역 주요 길목에 설치된 20대의 폐쇄회로(CC)TV가 도난, 뺑소니 등 수배차량을 촬영하면 즉시 차량정보를 경찰 무선기와 휴대폰, 태블릿PC로 전송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이날 경찰이 시연에 들어가자 종합상황실에서 CCTV 화면을 보던 관계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수

배차량이 CCTV에 찍히자마자 상황실 무선기에서 ‘화순 대리 교차로에서 소나타 뺑소니 차량 00가000번이 통과했습니다’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어 차량번호와 차종, 촬영시간, 위치, 수배종류 등 모든 정보가 즉시 경찰이 휴대한 전화기와 태블릿PC로 전송됐다.

CCTV에 찍힌 화면과 정보는 주로 사건 발생 뒤 수사자료로 쓰였지만, ‘스마트 치안시스템’을 이용

하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CCTV와 경찰청 수배 DB를 24시간 연결해 외근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은 전국 최초다.

화순군은 사업비 2억2000만원을 지원,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했다.

윤명성 서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현실에 비추어 경찰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였다”며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 수사력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힘을 합친 것은 ‘융합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 日 울려 퍼진 우정의 아리랑

## ‘나주 배꽃 색소폰 앙상블’ 현직 친선 공연

‘나주 배꽃 색소폰 앙상블 연주단’이 국제친선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市)를 방문해 교류공연을 펼쳤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연주단은 최근 일본 구라요시시 미라이주 시 대공연장에서 친선 교류 20주년 기념 초청연주회를 가졌다.

소프라노·알토·테너·바리톤 색소폰 등 7명으로 구성된 교류 연주단은 성주풀이와 까두리 사냥, 옹헤야, 아리랑 등 우리 판곡된 민요 메들리를 선보였다. 이에 앞서 교류공연단은 구라



# 강진군 팀제 폐지 실과제로

## 대과제 1실 11과로 개편

강진군이 성과중심의 ‘드림 팀제’를 시행 5년만에 폐지하고 실과체제로 전환했다.

강진군은 2일자로 팀제에서 대과제로 조직개편을 개편하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군은 지난달 25일 5급 이상 전보와 승진인사를 시작으로 27일 7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를 마치면서 팀제 1실 25팀 중심에서 대과제 1실 11과로 개편했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사무소’의 사업소 직제는 폐지

하고, 스포츠팀을 ‘스포츠탈관’으로 확대했으며 ‘미래산업과’를 신설해 강진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등 역동적인 균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열린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자율적·역동적 균형추진으로 군민과 호흡하고 군민에게 모든 성과가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앞서서 적당히 결재만 하는 등 무능한 공무원들은 연말 인사시 6급부터 서기관까지 대기발령시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il@

# 전남 농업박물관 일부 시설 무료 개방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은 남도생활민속관, 농경문화 체험관, 야외 전시장 등 박물관 일부 시설을 내년 5월 말까지 무료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쌀문화테마공원 조성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됨에 따라 3개 전시시설 등이 휴관함에 따른 것이다. 농업박물관은 사업비 227억원을 들여 쌀 박물관과 쌀을 주제로 한 ‘농업공원’ 등 체험 중심의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관 전시시설에는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한 농경 역사실, 농경 사계실, 공동체 문화실 등 ‘농경문화관’ 등이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빈약해야 할 시신이 너무 뿌리과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 전 남 영 암

#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의 1필지 (전남지방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